

● 연중 제 15주일 강론
살다보면 겪는 일, 실패.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맞는 말입니다. 비유는 알아듣게 하려고 쓰는 문학적 장치입니다. 그래서 문맥을 따라 가면 무엇을 말하는지 알아듣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과 같은 비유 앞에서 우리는 기쁨 때문에 마음이 흐벅지기 보다는 잠시 망설이기 십상입니다. 나 자신의 성정과 처지가 비유 속의 어떤 토질을 닮았는지 견주어 보면 우선 마음이 어두워지거나 착잡해서 개운하지 않기 일쑤입니다.
많은 열매를 맺는 좋은 땅과 같다는 결론이라도 얻어내면 다행스럽겠지만, 그럴 양이라도 남들 앞에서 내놓고 그런 말을 하기가 낯간지러울지 모릅니다. 스스로 마음 뿌듯하고 대견스러운 삶의 열매라는 것이 재산이나 명예, 지위나 학식처럼 세상 사람들의 부러움과 인정을 통해 측정될 수 있는 것이라면 한 발 다가서 볼 수는 있겠으나, 그 ‘말씀’이라는 것을 삶으로 풀어내어 내 자신이나 이웃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었다는 자부심을 갖기가 쉽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이래저래 편치 않습니다. 그래서 비유로 말쑥하신 이유(10절~17절)나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설명하신다(18절~23절)는 단락은, “진도를 해봐도 실패하는 경우가 많고 신자들의 생활을 살펴봐도 부실한 면이 많은 쓰라린 현상을 체험”하고 “그 체험을 씨 뿌리는 사람 비유에 나오는 소재 하나 하나와 연결하면서 우의적 해설을 내린”(정양모, 200주년 신약성서주해) 초대교회의 경험을 담아낸 설명이라는 성경주석이 도움이 됩니다.

예수님의 체험도 초대교회의 것과 별반 다르지 않았던가 봅니다. 애써 노력했지만 이렇다 할 성과들은 쉽사리 얻어지질 않고 바람과는 달리 도처에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어 기를 꺾어 놓는 상황들이 우리의 상황과 다르지 않았나 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비유는 우리에게 기쁨을 줄 충분한 이유를 담고 있음을 “알아듣게” 됩니다.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형편없고 실망스러운지를 알았으면 두고두고 죄스럽고 창피한 줄 알라는 체근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실패하는 일이 있더라도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희망을 가지라는 말씀으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

그렇습니다. 우리의 주님은 우리가 반성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겠지만 지레 체념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는 일마다 되는 것이 없다는 신세타령으로 주저앉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삶이 힘들어도 희망을 잃지 않고 선한 길을 가면 열매는 주어진다고 격려하십니다. 그 열매는 사람이 기대하는 것보다 항상 풍성하다고 하십니다. 씨앗은 사람이 뿌리지만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어주시는 것이므로!
--

이성균 예로니모 망미성당 주임 신부

마음의 휴식이 필요할 때

삶에 대한 가치관들이 우뚝서 있는 나날들에도 때로는흔들릴때가 있습니다. 가슴에 품어온 이루고픈 깊은소망들을 때로는 포기하고싶을때가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맑은 생각으로 하루를살다가도 때로는 모든것들이
--

부정적으로보일 때가 있습니다. 완벽을 추구하며 세심하게 살피는나날 중에도 때로는 건성으로지나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

정직함과 곧고 바름을 강조하면서도때로는 양심에 걸리는 행동을할 때가 있습니다. 포근한 햇살이 곳곳에 퍼져있는어느날에도 마음에서는 심한빛줄기가 내릴 때가 있습니다. 호홉이 곤란할 정도로 할일이 쌓여있는날에도 머리로 생각할뿐 가만히보고만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일의 할 일은 잊어 버리고 오늘만을보며 술에 취한 흔들거리는 세상을보고픈 날이 있습니다. 늘 한결 같기를 바라지만 때때로찾아오는 변화에 혼란스러울때가 있습니다. 한 모습만 보인다고 그것만을 보고 판단하지말고 흔들린다고 급지않은 시선으로 바라보지 말아주세요.

사람의 마음이 늘 고요하다면 늘 평화롭다면 그모습 뒤에는 분명 숨겨져 있는 보이지않는 거짓이 있을 것 입니다.
--

잠시 잊어버리며 때로는 모든것들을 놓아 봅니다. 그러한과정 뒤에 오는 소중한깨달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희망을 품는 시간들입니다. 다시시작하는 시간들 안에는 새로운비상이 있습니다.

흔들림 또한 사람이살아가는 한 모습입니다. 적당한소리를 내며 살아야 사람다운사람이 아닐까요?
--

◎공소일반공지 ◎ ▶고해성사 : 미사 10분전과 미사 직후 고해소앞에서 대기바랍니다. ▶성가대원 수시모집 : 문의는 성가대장에게 ▶사목회의 : 매월 마지막 주일 ▶바느질기도회 : 매월 격주 수요일 오후 7시30분 ▶울뜨레아 : 매월 첫주일

성 암브로시오의 사은 찬미가
○ 찬미하나이다. 주 하느님, 주님을 찬미하나이다. 영원하신 아버지를 온 세상이 삼가 받들어 모시나이다. ● 하늘의 모든 천사, 케루빔과 세라핌이 끊임없이 소리 높여 노래 부르오니 거룩하시도다!거룩하시도다!거룩하시도다! 온 누리의 주 하느님! ○ 엄위하신 주님의 영광 하늘과 땅에 가득하도다. ● 영광에 빛나는 사도들의 대열 무수한 예언자들의 대열 눈부신 순교자들의 무리 아버지를 높이 기려 받드나이다. ○ 땅에서는 어디서나 거룩한 교회가 그지없이 엄위하신 아버지 친아드님, 받들어 모셔야 할 외아드님 위로자 성령을 찬미하나이다. ● 영광의 임금이신 그리스도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아드님, 사람을 구원하시려, 모든 사람이 되시고자 동정녀의 품을 마다하지 않으셨나이다. ○ 죽음의 가시를 쳐보리시고 믿는 이들에게 천국을 열어주셨나이다. ● 지금은 하느님의 오른편, 아버지의 영광 안에 계시며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 보배로운 피로써 구속받은 당신 종들 저희를 구하시기 비옵나니 저희도 성인들과 함께 영원토록 영광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본당으로 가는 길’ 기도문
○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 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신다 하셨나이다. ● 저희는 수시로 주님을 잊고 때로는 소홀히 하며 거룩한 하느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나이다. ○ 이제 저희가 주님의 자비를 구하며 청하오니 저희 서부공소가 본당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를 사랑과 일치로 하나 되게 하시고 희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 마침내 저희가 본당공동체가 되는 날 모두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찬미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서부공소 및 본당 소식

◎ 친교식사 안내

오늘 미사후 라이프센타에서 친교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성모회에서 정성 들어 음식을 준비 하였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친교 식사후 정리 정돈이 끝날때까지는 친교실 밖으로 나가지 마시고 특히 어린이들이 복도에 나다니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 교육관 비품구입 위해 캐나다타이어 머니를 모금하오니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현금 시간에 함께 내주시기 바랍니다.**

◎ 오늘은 박춘서 교우의 장인이신 김희수 요셉님을 위한 위령기도가 있습니다.

◎ '본당으로 가는 길' 기도

저희 서부공소가 창립 된지 12주년이 되었습니다. 공소가 본당이 되는 것은 당연히 가야 할 길입니다. 저희가 가고자하는 그 길에 늘 주님이 함께 하시며 지켜보실 것입니다. 모름지기 저희의 정성된 기도와 이루고자하는 마음가짐이 보다 중요한 때 입니다. 늘 그 마음을 온전히 모아 마침기도로 '본당으로 가는 길'을 바칩시다.

◎ **현금봉헌**은 주님께 자신의 정성을 바치는 것입니다. 적당히 골라서 현금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 준대로 온전히 다 바쳐야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바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정성껏 봉헌합시다.

◎ **매주일 예배**하는 성전은 우리가 나눔과 일치의 공동체로 가꾸어 주님의 뜻을 이룩해야 할 거룩한 곳입니다. 항상 깨끗이 사용합시다.

◎ 서부공소 인터넷 클럽 안내

신앙생활에 유익한 정보와 교우간에 친목을 도모하고자 개설한 우리 공동체의 인터넷 사이트입니다.

www.catholic.or.kr/seobunews

가입 문의: 서기(한택중 519 8883 8488)

◎ 주간 전례

▶7월15일(화) 오후 8시, 보나벤투라주교학자기념
▶7월17일(목) 낮 12시, 연중 제 15주간 목요일

▶7월18일(금) 오후 8시, 연중 제 15주간 금요일
▶7월19일(토) 낮 12시, 연중 제 15주간 토요일

◎7월 8월 구역모임

각 구역에서는 자유롭게 구역 자체적인 프로그램을 통하여 단합할 수 있는 구역모임을 하여 주십시오.

◎7월 8월 휴가철

7월8월 휴가철을 맞이하여 많은 분들이 고국을 방문하기도 하고 가족끼리 여행을 떠나기도 합니다. 신앙도 함께 가져가십시오. 일상에서의 탈출이 신앙과의 탈출을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영원한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어떤 어려운 일도
어떤 즐거운 일도 영원하지 않다.

모두 한 때이다.
한 생애를 통해서 어려움만 지속된다면
누가 감내하겠는가.
다 도중에 하차하고 말 것이다.

모든 것이 한때이다. 좋은 일도 그렇다.
좋은 일도 늘 지속되지는 않는다.
그러면 사람이 오만해진다.
어려운 때일수록 낙천적인 인생관을 가져야 한다.
덜 가지고도 더 많이 존재할 수 있어야 한다.

이전에는 무심히 관심 갖지 않던 인간 관계도 더욱 살뜰히 챙겨야 한다.
더 검소하고 작은 것으로써 기쁨을 느껴야 한다.

우리 인생에서 참으로 소중한 것은
어떤 사회적인 지위나 신분, 소유물이 아니다.
우리들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일이다.

- 범정스님/무소유의 삶과 침묵 중에서 -

2008-28

2008. 7. 13.

연중 제 15주일

▶ 주일 미사	주일 낮 11시 30분
▶ 서부 공소 (주일)	오후 5시
▶ 동부 공소 (토)	오후 7시
평일 미사	주일 주보에 공지(화,목,금,,토)
성모 미사	매월 첫 토요일 낮 12시
성 시간	매월 첫 금요일 오후 8시
주일 학교	주일 낮 11시30분 미사 중
에비자교리	매년 10월- 3월, 6개월 교육
유아 세례	매월 마지막 주(미리 신청)
건진 성사	2년에 일회
혼인 성사	결혼 6개월 전 면담
고해 성사	미사 전·후
병자 성사	병환 중과 임종 직전
주임 신부	고 원 일 안드레아

미사전례

해설 이정숙 차주 해설 이우원

화답송 | 씨앗은 좋은 땅에 떨어져
열매를 맺었도다.

복음환호송 ◎알렐루야
씨는 하느님의 말씀이요 씨 뿌리는 이는
그리스도시니 그를 찾아 얻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알렐루야

성가

입당 (76) 그리스도 왕국
봉헌 (212) 너그려이 받으소서
성체 (175) 이보다 더 큰 은혜와
퇴장 (12) 주님을 기리나이다.

독서

7 월 13일	김현태	김진선
7 월 20일	신상우	신계연
7 월 27일	오세중	오미경

봉헌

7 월 13일	고영호	고기숙
7 월 20일	김현태	김진선
7 월 27일	신상우	신계연

복사

7 월 13일	류지홍	이수민
7 월 20일	박규환	이수빈
7 월 27일	류지현	류지홍

천교

7 월 13일	영광팀	7 월 20일	장미팀
7 월 27일	백합팀	8 월 3일	환희팀

2008 년 6월 29 일 현금 내역	
주일현금:	\$ 704.00
성전건립:	\$ 100.00
교무금 :	\$ 990.00
Total :	\$ 1956.00